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THE TRUTH WILL SET YOU FREE

기획·편집 | 사회봉사센터

인쇄발행일 | 2022년 2월

주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백석대로1
(목양관 115호 사회봉사센터)

전화번호 | 041) 550-0891~2

<http://volunteer.bu.ac.kr> / <http://volunteer.bscu.ac.kr>

발행처  백석문화대학교 · 백석대학교
사회봉사센터



CONTENTS

Baekseok Volunteer
백석볼런티어

Vol.17

발간사

다운

이웃과 함께 하는 대학

에그리나

백석사회봉사단

04 사회봉사로 실천하는 지성인,
이웃과 함께하는 백석인

06 사회봉사 공모 프로그램

07 사회봉사 공모 프로그램 현황

10 사회봉사 교과목 안내

12 사회봉사 인증제 안내

14 백석사회봉사단 소개

15 백석사회봉사단 상징

16 백석사회봉사단을 뒤돌아보며

18 함께 한 임원진들의 한마디(제 14기 임원들)

20 14기 백석사회봉사단 단원소개

22 지구를 올바르게 사랑하는 마음
4X4 지구 되살리기 - 빙고판
'지구의 날'카드뉴스

26 작지만 따뜻한 손길, 나눔봉사
5월 기획봉사 '백사봉이 떴다'

29 포도밭의 아이들
포도밭 아이들의 모습을 V-Log에 담아

32 세상을 이끄는 백석사회봉사단

34 백석사랑나눔 대축제

36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가을

38 이벤트분과 활동 내용

42 1학기 지역사회봉사

47 2학기 지역사회봉사

53 백석사회봉사단 MBTI의 모든 것

55 볼런티어 기자단 에디터

사회봉사로 실천하는 지성인, 이웃과 함께하는 백석인

사회봉사센터 소장

박현옥 교수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백석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하여 실천하는 지성인으로, 이웃과 함께하는 백석인으로 성장해온 백석사회봉사단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불어 여러분의 활동을 이 한 권의 사례집으로 발간하고 기록하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백석대학교 사회봉사센터에서는 사회봉사활동을 통하여 나눔과 섬김의 기독교 정신을 구현하고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양한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여러분의 섬김과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동체의 참 모습을 완성시켜가고 있습니다.

우리 백석사회봉사단이 특별한 이유는 우리 대학의 여러 전공 학문과 연계하였다는 점에서 전문적이고 천안-아산 지역을 넘어 보다 넓은 지역으로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울림과 방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여러분의 헌신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지역 내 어르신과 어린이가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을 기획하고 참여했던 시간을 통해 여러분 자신에게도 성장의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백석 볼런티어’는 지난 한 해 동안의 기록이자 실천하는 지성인으로 여러분의 활동을 소개하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2월

백석대학교 사회봉사센터 소장 박 현 옥



모든 좋은 일이 다 온다 - **다온**

Baekseok Volunteer Vol.17

이웃과 함께하는 대학

06	사회봉사 공모 프로그램
07	사회봉사 공모 프로그램 현황
10	사회봉사 교과목 안내
12	사회봉사 인증제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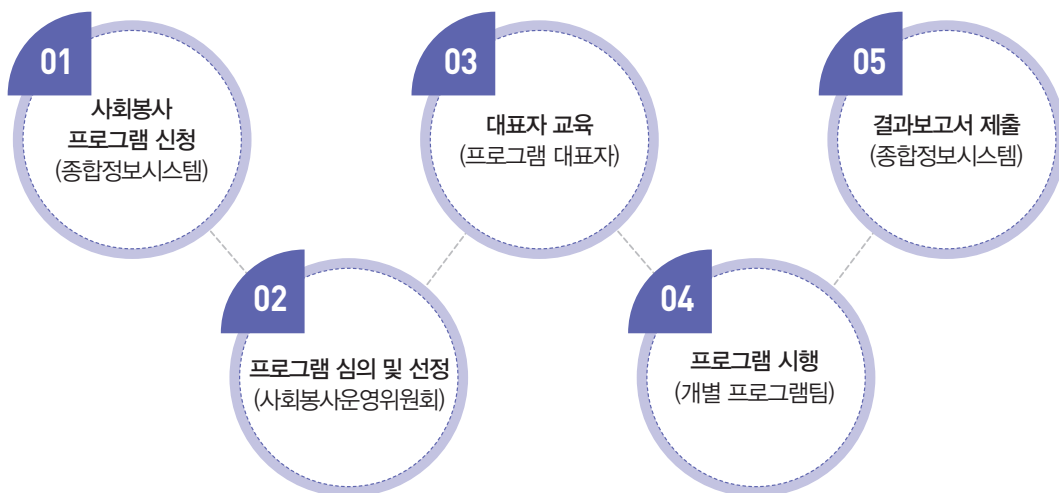


사회봉사센터에서는 우리대학의 건학 이념인 '**이웃과 함께하는 대학**'을 실현하고, 학생 및 교직원들의 사회봉사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 학기마다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행·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나 교직원이 학기 단위의 **봉사활동 계획서**를 사회봉사센터에 제출하면 이를 심사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프로그램 신청안내]

신청기간	매학기 공고기간(홈페이지 공고)
신청자격	학부(과), 교수, 직원, 동아리, 학생 소그룹
봉사지역	충청·경기·서울지역
봉사영역	전공연계봉사, 사회복지시설 / 기관봉사, 지역사회봉사 등
지원	프로그램 예산 및 행정지원(50만원 이내), 교수업적평가, 교원승진요건, 교직원 인사사고과 반영
특전	사회봉사 학점제, 인증제, PASS제, 장학금, 봉사상 등 제공

[프로그램 지원절차]



사회봉사센터에서는 우리대학의 건학이념인 ‘이웃과 함께 하는 대학’을 실현하기 위해 학생 및 교직원들의 사회봉사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매 학기 **사회봉사 공모**를 공모하여 **봉사활동에 필요한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1학기 백석문화대학교 사회봉사 공모 프로그램 현황

순번	주관	지도교수	프로그램명	봉사참여자인원		
				학생	교수	총계
1	백석문화대학교 간호학과 전공 동아리 H.O.P.E	원효진	2021년 H.O.P.E 전국 천사무로급식소 봉사활동	20	1	21
2	BKF동아리	이애자	지역아동과 함께하는 요리교실	23	2	25
3	디자인학부	최영옥	아동생활 미술과 나눔봉사	12	1	13
4	TOSS 간호학과 동아리	한숙원	위시엔젤 간호학과 봉사활동	17	1	18

2021-2학기 백석문화대학교 사회봉사 공모 프로그램 현황

순번	주관	지도교수	프로그램명	봉사참여자인원		
				학생	교수	총계
1	힐링터치	구정아	힐링터치봉사활동	24	1	25
2	하이멘탈리티	금 란	청바지(“청춘나래는 바로 너지”)	4	1	5
3	간호학과/카르페디엠	범은애	카르페디엠-지역봉사	16	1	17
4	안경사랑	오현진	눈건강 지킴이	14	1	15
5	BKF동아리	이애자	지역아동과 함께하는 요리교실	21	2	23
6	디자인학부	최영옥	아동생활 미술과 나눔봉사	14	1	15



2021-1학기 백석대학교 사회봉사 공모 프로그램 현황

순번	주관	지도교수	프로그램명	봉사참여자인원		
				학생	교수	총계
1	SE'BU Atelier(미술인지발달프로그램)	김미숙	Atelier(미술인지발달프로그램)	11	1	12
2	사범학부	김영성	장애인 육상 체육교실	9	0	9
3	사범학부 특수체육교육과	서진희	장애인 성인 배드민턴	8	1	9
4	사범학부	서진희	좌식 배드민턴 봉사	10	1	11
5	보건학부 치위생학과 사랑초아 동아리	심선주	사랑초아	36	2	38
6	보건학부	안영미	BNVP(Baekseck Nurse Volunteering Program)	41	1	42
7	사범학부 특수체육교육과	양한나	운동발달클리닉	15	1	16
8	사범학부 특수체육교육과	양한나	발달장애 성인 웨이트트레이닝 프로그램	6	1	7
9	컴퓨터공학부/HUB동아리	이근호	환경 미화	17	1	18
10	사범학부	이성봉	인지학습실	6	0	6
11	기독교학부	이용태	성경인물	5	1	6
12	기독교학부	이용태	사랑해요 내자신	2	1	3
13	간호학과	전미순	땅그랑 땡 영어소리	5	1	6
14	보건학부 작업치료학부	정희승	정서발달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13	1	14
15	어문학부	최광열	은혜로(路) 사랑으로(路)	5	1	6
16	사회복지학부 RCY	최규명	헌혈캠페인	6	1	7
17	사범학부 특수체육교육과	한동기	도담도담체육교실(장애아동체육교실)	20	1	21
18	정경다리	황수진	그린캠퍼스&그린빌리지	7	1	8



2021-2학기 백석대학교 사회봉사 공모 프로그램 현황

순번	주관	지도교수	프로그램명	봉사참여자인원		
				학생	교수	총계
1	기독교학부	권선영	모해(청소년거리상담)	13	1	14
2	사범학부	김미숙	미술인지	5	1	6
3	사범학부 특수체육교육과	김영성	지체장애인 휠체어력비교실	5	1	6
4	사범학부	김영성	장애인 육상 체육교실	7	0	7
5	사범학부	김정현	중등인지 학습실	10	1	11
6	어문학부소모임	김현정	일본문화와 언어학습봉사	4	1	5
7	간호학과 RCY	박철웅	헌혈캠페인	16	1	17
8	사범학부 특수체육교육과	서진희	좌식 배드민턴 봉사	14	1	15
9	사범학교 특수체육교육과	서진희	장애인 성인 배드민턴	6	1	7
10	보건학부 치위생학과 사랑초아 동아리	심선주	사랑초아	25	2	27
11	간호학과	안영미	BNVP(Baekseok Nurse Volunteering Program)	39	1	40
12	간호학과	양영미	아우르기	11	1	12
13	사범학부 특수체육교육과	양한나	운동발달클리닉	15	1	16
14	기독교학부 CEM	이용태	순종을 배워요!	6	0	6
15	어문학부	이용태	교육 봉사 프로그램	4	1	5
16	보건학부 작업치료학과	정희승	아동을 위한 학습멘토링	12	1	13
17	어문학부 선교부 중심	최광열	은혜로 사랑으로	6	1	7
18	사범학부 특수체육교육과	한동기	도담도담체육교실(장애아동체육교실)	22	1	23
19	보건학부	황수진	그린캠퍼스&그린빌리지	8	1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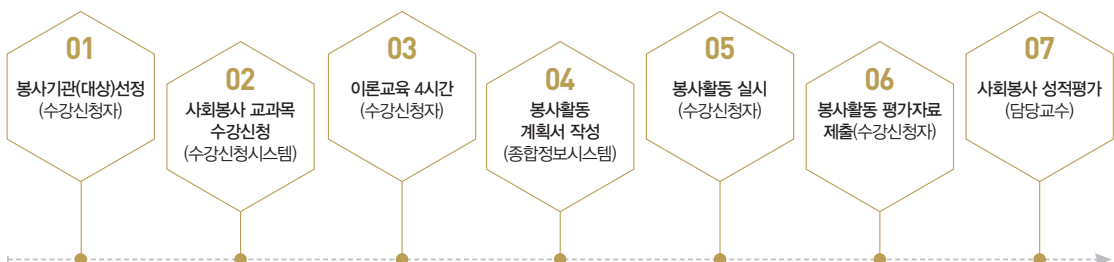


학생들의 **사회봉사 활동을 장려** 하기 위하여 일정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에 대해서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 개요 】

교과목명	사회봉사 I, 사회봉사 II
학점	1학점(19학점 이외 추가로 신청가능)
구분	교양선택
신청대상	사회봉사 I : 사회봉사 과목을 처음 수강하는 재학생 사회봉사 II : 사회봉사 I 이수자 수강 가능 * 전적대학에서 사회봉사 교과목을 이수한 편입생 수강 가능
운영방법	총 30시간 이수(이론교육 1시간 + 사이버강의 3시간 + 봉사활동 26시간)
수강신청	기간 : 수강신청 및 정정기간
평가방법	PASS / FAIL 평가 * 학기말에 사회봉사활동 실적을 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음
봉사활동기관	사회봉사시설 및 단체

【 운영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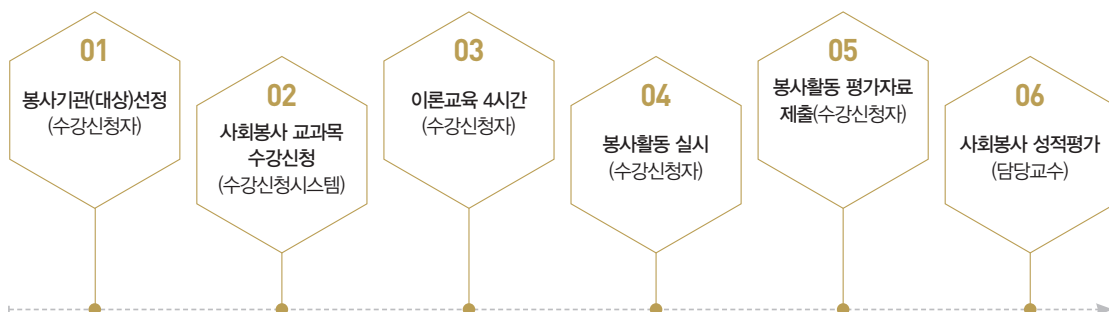
학생들의 사회봉사 활동을 장려 하기 위하여 일정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에 대해서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 개요 】

교과목명	대학생과 사회봉사
학점	2학점
구분	교양선택
신청대상	재학생(1회에 한함)
운영방법	총 30시간 이수(이론교육 1시간 + 사이버강의 3시간 + 봉사활동 26시간)
수강신청	수강신청기간
평가방법	PASS / FAIL 평가 * 학기말에 사회봉사활동 실적을 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음
봉사활동기관	사회봉사시설 및 단체

【 운영절차 】





사회봉사 인증제는 바른 인성(人性)과 섬김의 리더십을 갖춘 인재를 필요로 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재학기간 동안 사회봉사활동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총장 명의의 사회봉사 인증서를 수여함으로써, 졸업 후 취업이나 진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백석대학교 】

사회봉사 인증제는 사회봉사 학점제 과목인 〈사회봉사 I〉, 〈사회봉사 II〉를 이수하고 입학 시점부터 8학기(4학년 2학기) 종료 시점까지 수행한 총 봉사시간이 200시간 이상인 학생에 대해 소정의 확인절차를 거쳐 사회봉사인증서를 발급해주는 제도입니다.

- 2007학년도 입학생부터 200시간 이상이 적용되며, 이전 재학생들은 150시간 이상입니다.
- 편입생은 전적대학 사회봉사 교과목 이수 + 사회봉사 II를 수강하고 봉사시간이 150시간 이상인 경우 수여합니다. (전적대학 사회봉사 활동 시간 최대 100시간 인정)



사회봉사 I 과
사회봉사 II를
수강하고

총 봉사시간
200시간 이상이면
(8학기) 인증서 수여

【 백석문화대학교 】

사회봉사 인증제는 사회봉사 학점제 과목인 대학생과 사회봉사를 이수하고 2년제의 경우 입학 시점부터 4학기(2학년 2학기)종료 시점까지 수행한 총 봉사시간이 70시간 이상, 3년제의 경우 입학 시점부터 6학기(3학년 2학기)종료 시점까지 수행한 총 봉사시간이 100시간 이상, 4년제의 경우 입학 시점부터 8학기(4학년 2학기)종료 시점까지 수행한 총 봉사시간이 140시간 이상인 학생에 대해 소정의 확인절차를 거쳐 사회봉사인증서를 발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대학생과 사회봉사를
수강하고

총 봉사시간 2년제 70시간
3년제 100시간, 4년제 140시간
이상이면 인증서 수여



사랑하는 우리 사이 - **백석사회봉사단**

Baekseok Volunteer Vol.17

백석사회봉사단

14	백석사회봉사단 소개
15	백석사회봉사단 상징
16	백석사회봉사단을 뒤돌아보며
18	함께 한 임원진들의 한마디(제 14기 임원들)
20	14기 백석사회봉사단 단원소개
22	지구를 올바르게 사랑하는 마음 4X4 지구 되살리기 - 빙고판 '지구의 날'카드뉴스
26	작지만 따뜻한 손길, 나눔봉사 5월 기획봉사 '백사봉이 났다'
29	포도밭의 아이들 포도밭 아이들의 모습을 V-Log에 담아
32	세상을 이끄는 백사봉
34	사랑 나눔 대축제
36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가을
38	이벤트분과 활동 내용
42	1학기 지역사회봉사
47	2학기 지역사회봉사
53	백사봉 MBTI의 모든 것
55	볼런티어 기자단 에디터

백석사회봉사단 소개



구성 및 조직

* 구성

- 백석문화대학교 및 백석대학교 재학생 중 사회봉사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진 학생으로 구성

* 조직

- 단장(사회봉사센터 소장), 부단장(사회봉사센터 직원)
- 임원진 : 팀장, 부팀장, 회계, 지역사회분과장, 미디어분과장, 기획분과장

봉사단 운영

단원중심의 자율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기획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사회봉사센터의 지도 및 지원체제를 유지한다.

봉사단 주요사업 및 기능

- 정기 봉사활동(학기 중 천안지역 주 1회 봉사)
- 사회봉사센터 주관 봉사활동
- 기타 봉사단 기획 봉사활동

단원에 대한 특전

- 매 학기 활동에 대한 봉사시간 인정(학점제, 인증제, PASS제 적용)
- 해외봉사단 선발 시 가산점 부여
- 우수 활동자에 대하여 사회봉사 장학금 지급 (총인원의 20% 이내)

백석사회봉사단 상징



백석사회봉사단 심볼

위 백석사회봉사단의 로고는 백석사회봉사단의 첫 글자 “B”와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노란색 하트”로 나비의 날개 부분을 만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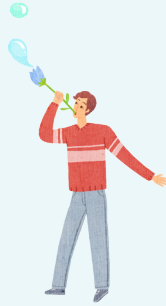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추후 엄청난 결과로 이어지듯이 백석사회봉사단의 활동이 “나비 효과”를 만들어냄을 상징하는 심볼입니다.

백석사회봉사단 일러스트

위 백석사회봉사단의 일러스트는 나비를 쫓아다니는 고양이의 모습으로 고양이의 뒷부분이 나비를 닮았다는 속설에 유래하여 나비효과를 일으키고자 하는 백석사회봉사단 단원들의 모습을 상징하였습니다.



백석사회봉사단을 뒤돌아보며



팀장 소감문 신예준

안녕하세요. 14기 백석사회봉사단 팀장 신예준입니다.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해보고 싶은 봉사도 많았고, 그로인해 우리가 계획했던 봉사를 기획하고 진행도 했었지만 어쩔 수 없이 포기 할 수밖에 없는 봉사도 있었습니다. 팀장으로서 완벽하게 역할을 수행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활동에 있어서 14기 임원들에게 항상 고맙고 미안했습니다. 책임감 있고 무게감 있게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야 하는 자리였는데, 그러지 못한 거 같아서 심적으로 아쉽다는 마음이 들고 후회스러웠습니다. 팀장을 맡게 되면서 배운 점도 많고, 배워야 할 부분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모든 단원들을 대표하는 자리여서 사람들과의 접촉도 많았습니다. 자리를 빌려 여러 사람들과 좋은 인연을 만들었던 건 나에게 큰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수는 임원들의 아이디어로 모든 활동이 진행됐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기획해서 하나의 봉사로 만들 어지는 과정들은 쉽지 않았지만 결과를 바라보았을 때 하나같이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꼈다. 체계적인 봉사 단체에 들어와서 봉사를 시작한 건 13기 활동이 처음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사람들과 곁에서 보람찬 일을 한다는 것에 감개무량하다 느꼈습니다.

→ 팀장을 맡게된 이유와 처음의 각오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어떤 집단에 있던지간에 묻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백사봉에서 집단을 이끌어 가게 되는 자리에 추천을 받았고, 저에게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다방면으로 얻을 것도 많다고 생각했고,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어서 저 스스로도 성장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실이 미치지 않았지만 주어진 역할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나중가서 뒷말 안 나오게 모든 업무에 있어서 완벽하게 진행하고 싶었고, 나중에 가서도 '14기 임원들이 최고였다' 라는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처음 열정 그대로 진행했다면 2학기 활동 좀 더 욕심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나에게 백사봉이란?

저에게 백사봉은 '안식처'입니다. 목양관 센터에 들어가면 알 수 없는 포근함이 반겼습니다. 이걸 저뿐만 아니라 모든 단원들에게도 해당사항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활동에 있어서 완벽하게 역할을 수행했다고 생각 하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제한적인 활동들이 많았고, 또 추가적으로 많은 단원들이 학교에 모이는 일이 적었기 때문에 단원들 서로서로 교류도 적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신경 썼으면 결과는 달라졌을까? 자책도 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백사봉은 서로서로 내적 친밀감은 쌓였을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활동이 마지막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기수 팀장님께서는 천안지역 내에 영향력 있는 봉사단체가 되었음을 바랬는데, 저는 그 바람을 수행하지 못한 것 같아 다음 기수 단원들과 임원들에게 커다란 짐을 쥐어준 거 같아 죄송스럽습니다. 부족한 팀장이

었는데 끝까지 믿고 따라와준 14기 임원들과 단원들, 과장님과 하은선생님, 소장님께 감사하단 말씀을 여기에 적고싶습니다. 다음 기수는 지금보다 더 체계적으로 틀이 잡히고, 코로나가 종식 되어서 백사봉 활동이 활성화 되기를 기도합니다.

… 14기 단원들에게 하고싶은 말

부족한 팀장 밑에서 1년동안의 모든 활동을 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이번 14기 활동을 마지막으로 백석사회봉사단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유를 설명하기에는 구구절절이기에 만약 궁금하시다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과 저의 대학생활을 마무리를 짓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점 굉장히 아쉽습니다. 비록 저는 여기서 여정을 끝내지만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부탁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 소외되는 단원들 없이 모두가 함께 적극적으로 봉사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14기 활동 하면서 이 부분을 바꾸지 못한 점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은 제 부탁을 들어주셨으면 지금보다 더 나은 백사봉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힘든 일이 있으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편한 형, 오빠가 되어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4기 단원분들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백석사회봉사단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함께 한 임원진들의 한마디(제 14기 임원들)

부팀장 | 유소희

안녕하세요 백석사회봉사단 14기 부팀장 유소희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13기 백석사회봉사단 단원으로 들어왔을 때 첫 봉사단의 활동이라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제한이 너무 컸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지역사회봉사를 위해 꾸준히 회의하고 고민하여 봉사를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고 저도 노력해서 백석사회봉사단 내에서 혼자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모두 힘을 합쳐서 봉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부팀장을 맡아 1년을 활동하였습니다. 부팀장이라는 직책을 맡으면서 책임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책임감은 남들보다 조금 더 부지런히 살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도중에 힘들기도 했고, 일을 많이 미루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100점짜리 부팀장은 아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를 잘 끌어준 나머지 백석사회봉사단 임원들과 14기 단원들이 있어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15기, 16기 백석사회봉사단 임원들도 힘이 물론 들겠지만 나중이 되면 정말 뿌듯하다는 생각이 꼭 들것이기 때문에 현재에 충실히 즐기면서 봉사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분과장 | 채혜림

안녕하세요 백석사회봉사단 14기 기획분과장 채혜림입니다. 2021년 백사봉 단원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즐거웠고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6번의 기획봉사를 진행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적은 횟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학기 중 매 달마다 진행되다 보니 부담도 크고 시간에 쫓기듯 활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획봉사는 원래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단원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봉사활동이라서 늘 새롭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단원들의 도움으로 계획되었던 6번의 봉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회의도 봉사도 대면으로 진행되지 못할 때가 많아서 적극적인 참여와 원활한 진행이 조금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단원들과 비대면으로 소통하고 봉사할 수 있어서 좋은 추억,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13기 신입 단원으로 들어와 비대면 기획봉사만 겪어보기도 했고 다른 선배와의 교류가 적어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경험은 부족했지만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기획봉사를 계획하고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획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단원들과 도와주신 모든 임원들 정말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정말 잘 부탁드리며 즐겁고 행복한 백사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회계분과장 | 김연수

안녕하세요, 14기 기획분과장 김연수입니다. 2020년에는 단원으로 백사봉을 하였고, 2021년에는 회계라는 임원의 이름으로 백사봉에 임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임원으로서 늘 부족했는데 이번 14기 단원 모두가 잘 따라와주어서 올 한해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백사봉을 하면서 비대면활동이 많아 단원들 모두와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고, 친해지는 시간들이 많이 없어서 아쉬웠지만 내년

에는 코로나가 완화 되어서 모든 단원들이 서로가 친해지고, 또한 대면봉사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회계로서 그리고 임원으로서 단원들과 많이 이야기 나눠 보지 못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내년에 뽑히는 15기 새로운 임원들이 잘해주실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늘 사랑으로 품어주고 선후배간에도 돈독한 사랑과 배려가 넘치는 즐겁고 행복한 백석사회봉사단이 되기를 늘 응원하겠습니다. 백석사회봉사단 화이팅!!! 감사합니다!!!



지역사회분과장 | 한지수



2021년 한 해를 백석사회봉사단 14기 지역사회분과장으로 활동하였다. 임원이 되고 처음으로 봉사단 활동을 기획하던 날이 아직도 생각난다. 14기 임원진들 모두 설레는 마음으로 3월 OT를 기획하며 준비하였다. 비록 대부분의 활동이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대체되었지만, 비대면으로 활동하는 만큼 단원들이 더 좋은 백사봉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준비하였다. 백석사회봉사단 임원으로서 일 년이라는 긴 시간을 이끌어 가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같이 고생하는 임원들과 항상 열심히 임해주는 단원들 덕에 버틸 수 있었고, 더 열심히 하자라는 마음으로 임할 수 있었다. 물론, 다 같이 만날 수 있는 활동이 적어 모든 단원들의 얼굴을 자주 볼 수 없었고 많이 친해질 수 없어서 아쉬웠지만, 단원들이 모든 활동에 열심히 참여해주어서 고맙았다.

일 년 동안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았던 지역사회분과장이었지만, 잘 따라와주고 지역사회봉사 활동에 있어 항상 열심히 해주는 단원들과 한 학기 동안 조장을 맡아준 단원들에게 정말 고맙다.

마지막으로 일 년 동안 함께 백석사회봉사단을 위해 고생한 14기 임원진들 정말 고생 많았고, 수고하셨습니다. 14기 임원들 정말 고맙고 사랑합니다

♡백사봉은 사랑입니다♡

미디어분과장 | 이명화

13기에 미디어분과원으로서 활동하던 제가 14기에는 미디어분과장이라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정말 잘해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14기 백석사회봉사단원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영원히 남겨지고 기억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다짐을 갖고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엔 앞으로 활동하게 될 봉사과 미디어분과의 활동이 기대되었습니다. 열정적으로 단원들과 함께 의견을 내고 들으며 계획을 세웠지만, 생각한 만큼 순조롭지는 못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대면보다는 비대면으로 봉사를 더 많이 하게 되면서 계획 세우던 것이 실행하기 어려워지게 되었고, 그에 미디어분과는 사진과 영상 등을 촬영하는 것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백사봉과 미디어분과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주었고, 잘해주었습니다. 특히 미디어분과에서 처음 실행해본 카드뉴스 제작은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v-log 영상을 만들 때에도 만드는 내내 힘들다는 생각은 하나도 들지 않았고 즐겁기만 했습니다.



봉사와 함께 미분과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것이 힘들 수도 있지만 백사봉 단원들의 모습을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이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추억을 쌓고 만들게 해준 미디어분과와 우리 백석사회봉사단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기수에도 뜻깊고 소중한 시간을 가지며, 행복을 주고 받는 그런 백석사회봉사단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14기 백사봉 단원소개



팀장 | 신예준
MBTI : ISTJ



부팀장 | 유소희
MBTI : ENFJ



기획분과장 | 채혜림
MBTI : ENFP



회계분과장 | 김연수
MBTI : ESTJ



지역사회분과장 | 한지수
MBTI : ISFJ



미디어분과장 | 이명화
MBTI : ENFP



김현아
MBTI : INFP



윤영선
MBTI : ESFP



박하영
MBTI : ENTP



신수경
MBTI : ENTJ



배가현
MBTI : ESFP



박예림
MBTI : ISFJ



맹서은
MBTI : ESFJ



김하영
MBTI : ISTP



김예진
MBTI : ENTJ



김예림
MBTI : ESFP



이세은
MBTI : ESFJ



김민정
MBTI : ESFP



김도현
MBTI : ESFJ



송실비아
MBTI : ESFJ



황서연
MBTI : ENFJ



황빈희
MBTI : ISFP



홍은총
MBTI : ENFP



최영서
MBTI : ISFP



박소희
MBTI : INF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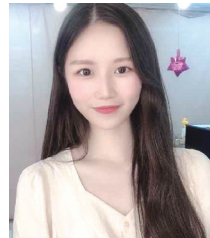
주예린
MBTI : ESFP



정진주
MBTI : ENFP



정지연
MBTI : INFJ



정예진
MBTI : ENTP



안수진
MBTI : ENTJ



임가현
MBTI : ENFJ



이 현
MBTI : ENFP



김진성
MBTI : ESFP



한금재
MBTI : ESFP



이성근
MBTI : ENTP



최주희
MBTI : ENFP



오승연
MBTI : ESTJ



이나은
MBTI : ISFJ



이한별
MBTI : ENFP

지구를 올바르게 사랑하는 마음

기자 이 현

지난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이한 백석사회봉사단은 일회용품의 과사용으로 인해 화두로 떠오른 환경오염의 문제를 되돌아보고 각자의 자리에서 지구를 위한 작은 행동들을 함께 실천하였다.

지구의 날의 기원, 해양오염의 심각성, 지구를 지키는 생활 습관 등을 알려주는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SNS에 게시하였고 단원들과 대중들로 하여금 지구를 지켜야 하는 동기를 끌어내었으며, 일상생활 속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들이 적힌 5x5 사이즈의 빙고판을 만들고 한 달 동안 이를 채워가며 환경을 지키는데 노력을 가했다.

관심이 없었더라면 무의미하게 흘러보낼 지구의 날을 기획봉사를 통해 기념하고 평소에는 지나쳤었던 지구를 위한 작은 행동들을 직접 실천에 옮기며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은 매우 뜻깊었다. 빙고판을 가득 채운 단원들의 사진들은 바쁜 시험 기간 속에서도 빛이 났으며 이번 기획봉사를 통해 다시금 새롭게 환경을 위한 약속을 다짐하기도 하였다.

기획 봉사를 끝으로 이러한 마음과 행동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 늘 환경을 사랑하고 아끼는 백석사회봉사단이 되기를 소망한다.





4X4 지구 되살리기-빙고판

비닐 대신 장바구니 사용하기	텀블러 이용하기	배달 음식 시킬 때 일회용품 받지 않기	페트병 라벨 제거하기
실내 정화 식물 키우기	음식물 묶은 플라스틱 씻어서 분리수거하기	자신이 할 수 있는 환경 보존 방법 (자유롭게)	양치할 때 컵 사용하기
안 쓰는 전기제품 코드 뽑기	마스크 끈 자르고 돌돌 말아서 버리기	장거리 이동할 땐 대중교통 이용하기	메일함 비우기
종이 대신 모바일 영수증 받기	음식 남기지 않고 다 먹기	개인 스테인리스 빨대 사용하기	친구에게 지구의 날에 대해 알려주기



백석사회복지사단 14기 학부/학과 (보건행정학과) 이름 (신예준)

비닐 대신 장바구니 사용하기		배달 음식 시킬 때 일회용품 받지 않기	
		자신이 할 수 있는 환경 보존 방법 (자유롭게)	
종이 대신 모바일 영수증 받기			

백석사회복지사단 14기 학부/학과 (사회복지학부/아동복지학과) 이름 (이명학)

		자신이 할 수 있는 환경 보존 방법 (자유롭게)	
종이 대신 모바일 영수증 받기		개인 스테인리스 빨대 사용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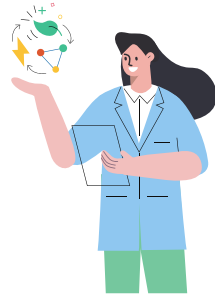
백석사회복지사단 14기 학부/학과 (경찰학부) 이름 (이준한)

		배달 음식 시킬 때 일회용품 받지 않기	
		장거리 이동할 때 대중교통 이용하기	
	음식 남기지 않고 다 먹기	개인 스테인리스 빨대 사용하기	친구에게 지구의 날에 대해 알려주 기

백석사회복지사단 14기 학부/학과 (간호학과) 이름 (황소희)

비닐 대신 장바구니 사용하기		배달 음식 시킬 때 일회용품 받지 않기	
	음식 남기지 않고 다 먹기		

'지구의 날' 카드뉴스



14기 미디어분과장 **이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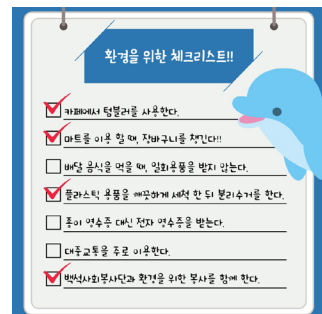


14기 미디어분과원 **윤영선**

처음으로 '지구의 날'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지구에 대해 관심이 없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지구의 날 카드 뉴스를 제작하면서 지구에 대해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백석사회봉사단 뿐만 아니라 지구에 사는 온 공동체가 실천 가능한 지구 살리기 방법에 대해 알릴 수 있었던 점이 뿌듯하였고 다 함께 지구를 사랑하며 아끼자는 마음을 카드 뉴스를 통해 전달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지구의 날조차 언제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었는데 지구의날 카드뉴스 제작을 하면서 내가 몰랐던 환경에 대한 문제점과 개인이 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환경보호 방법들을 직접 찾아보며 알아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번에 배운 것을 응용해서 앞으로도 지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4기 미디어분과원 이종환입니다. 이번 4월달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카드뉴스를 제작하기 위해 지구오염이 끼치는 위험성과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전에는 지구의 날이 있던 것은 알고있었지만 그냥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카드뉴스를 만들면서 지구의 날이 어떤 날인지 사람들이 항상 당연하게 사용하는 물건이 지구에게 어떠한 피해가 가는지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작한 카드뉴스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지구의 날을 알아주고 지구를 위하여 작은 봉사 하나라도 해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음에 제작할 때는 비대면이 아닌 대면으로 만나 더 좋은 카드뉴스를 제작하면 좋겠습니다!



EARTH DAY

더 나은 지구를 위해 여러분들도 함께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지구를 아끼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모여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지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백석사회복지재단

QUESTION

매년 4월 22일은 무슨 날일까요?



지구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자연보호자들이 제정한 지구 환경보호의 날

바로 4월 22일 지구의 날입니다.

백석사회복지재단

EARTH DAY

지구의 날



1969년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해상원유 유출사고를 계기로
환경문제에 관한 발국민의 관심을 환기시키기위해
1970년 4월 22일 미국 워싱턴주 상원의원
게이로드 넬슨에 의한 주창을 시작으로,
전 세계 시민들의 환경을 위한 관심과 실천들이 모여
현재는 큰 규모의 시민 참여 행사로 발전하게되어
올해로 50주년을 맞이 하게되었습니다!

백석사회복지재단

PROBLEM

해.양.오.염

지구의 날을 맞이한 지구는
지글도 아파하고 있습니다..



REASON

플.라.스.틱

최근 심각한 환경문제로서 수면 위로 떠오른
해양오염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플라스틱입니다.

연간 3억 톤 이상의 플라스틱이 생산되고 있으며,
그 중 약 8백만 톤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다 속에는 이미 1억 5천만 톤이 쌓여 있는 상태이며,
이는 2007년과 비교하여 4배 증가, 약 3배 이상의 양으로
증정됩니다.



REASON

대한민국의 플라스틱 사랑

다구나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플라스틱 폐기물이 최근 10년간
71.7% 급증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19의 예매로
현재는 배달음식, 포장과 같은 플라스틱의 사용이
다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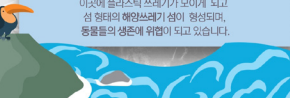
하지만!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재활용 되는 양은 30% 미만이라는 걸라를 보이며,
그 쓰임을 다하지 못해서 버려진다고 합니다.

WHY

왜 플라스틱이 문제가 될까요?

플라스틱의 문제점은 분해가 잘 되지 않는 물질이라는 점입니다.
다른 유형의 쓰레기들보다 더 오랫동안 남아 있으며,
오염기간 동안 독성 물질을 흡수하고 배출하며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 큰 악영향을 끼칩니다.

또한 플라스틱 쓰레기들은 해류를 따라 전 세계로 이동합니다.
바다에는 해류와 방향이 단지 않는 곳이 존재하는데,
이곳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모이게 되고
섬 영타의 해양쓰레기량이 형성되며,
동물들의 생존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ANIMAL

해양생물과 플라스틱

플라스틱이 해양생물들의 먹이 사슬 속에 존재하면서
매년 100만 마리의 바다새와 10만 마리의 해양 동물들이
죽음을 잃고,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700종의 해양생물들이
플라스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한 물고기들은
그래서 우리의 식탁에 오르게 됩니다.



NEWS

너가 편하면 나는 아파

심각한 지해기 사용이는 수돗물, 전열로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는 시대가 발생하는 반면
지구촌에서는 해양쓰레기 때문에 고통받는 동물들이
늘면서 이를 구조하는 영상이 대중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기도 하였습니.

플라스틱 사용으로 인한 지구온난화의 가속은
북극해 바다의 얼음을 10년마다 2.7%씩 줄이며
80년 후에는 북극권의 멸종을 예상하는
연구결과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손길, 나눔봉사



기자 윤영선

2021년 5월 29일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 학생들이 함께하는 백석 사회봉사단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아동센터와 노인센터에 물품을 전달하는 나눔 봉사를 진행하였다. 봉사활동은 대면과 비대면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하였는데, 다품 블록을 만들어 전달하는 비대면 활동과 텀블러, 반팔티, 밥, 김, 참치, 라면, 초코파이, 물티슈, 휴지, 마스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필품과 먹거리를 정해진 개수대로 담아 전달하는 대면 활동을 진행했다.

더운 날씨와 좁은 공간에서 진행되는 작업으로 인해 지치고 어수선했던 분위기였지만 서로서로의 일을 도우며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 결과, 예상시간보다 빨리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원활한 경제활동이 힘들어져 곤란함을 겪는 분들에게 우리의 작은 손길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참여했으며, 백석사회봉사단 14기 단원들이 함께하는 첫 대면봉사였기에 더욱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된다.

백석사회봉사단 단원들은 이번 첫 대면봉사를 계기로 아쉬웠던 점을 보완하여 다음 달에 진행되는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5월 기획봉사 '백사봉이 났다'



14기 맹서은

처음으로 대면 봉사를 해보았던 거라 이전부터 기대가 되었고 잘 어울릴 수 있을까 걱정도 많았지만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함께 활동하며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습니다~

12기 박소희

기획봉사에 대해 의견만 내는 것이 아닌, 5월 기획봉사 팀과 직접 기획하고 진행해 더욱 의미있던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혼자였다면 하지 못했을 것을 백사봉 단원들의 노력으로 지역 시설의 이용자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대면 '보틀'조



대면 '박스'조



대면 + 비대면 '키링 만들기' 조





포도밭의 아이들



기자 이종환

백석사회봉사단은 2021년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농촌에서 일하시는 어르신들의 일손을 돕기 위하여 포도를 포장하는 농촌 봉사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번 농촌기획 봉사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3팀으로 나누어 3일간 농촌봉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단원들 대부분은 농촌봉사를 처음 접해보거나 오랜만에 실시하는 봉사활동이라 설레는 마음과 일손이 부족한 어르신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책임을 갖고 봉사에 임하였다. 포도가 자라는 과정에 있어서 벌레나 해충에 의해 포도가 망가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포도를 봉지로 포장해서 벌레와 해충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어르신들의 무더운 날씨에도 포도에 온 정성을 담아 포장하시는 모습을 보고, 백석사회봉사단 또한 그러한 어르신분들을 생각하며 책임의식을 가지고 봉사에 최선을 다하였다. 봉사를 진행하면서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주인분들께서 시원한 수박을 대접해주셔서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고 혼자가 아닌 단원들과 함께한 봉사라는 점이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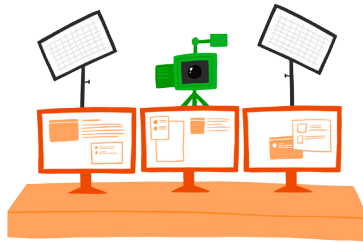
단원들은 봉사에 임하면서 “포도를 재배하는 과정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 농사가 쉬운 것이 아니다.”, “봉사를 통해 뿌듯함을 느낀다.” 라는 소감을 전하였고 마을 이장님께서도 단원들의 노력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하였고 고마운 마음을 백석사회봉사단 단원들에게 직접 이야기해주셨다.

마지막으로 단원들 모두가 봉사를 마치고 난 뒤 단원들이 함께 포장한 포도를 되돌아봤을 때 정말 뿌듯하고 좋은 경험이 된 것 같다고 전하였고, 봉사를 진행하면서 단원들과의 추억과 농촌에서의 있었던 일들을 영상 속에 담아 농촌에서의 추억을 되돌아볼 수 있게 제작하였다.

백석사회봉사단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며 어떻게 봤을 땐 힘든 봉사였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오랜만에 단원 전체가 함께 진행한 봉사여서 재밌었고 보람된 봉사라고 생각한다.



포도밭 아이들의 모습을 V-Log에 담아



기자 이명화



6월 농촌의 달을 맞이하여 14기 백석사회봉사단은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쉼머리 마을 인근'에 있는 포도 밭에 찾아가 일손을 돕는 것으로 이웃과 함께 하는 대학으로서 사명과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백석인"에 맞는 행동을 실천하였다. 이에 백석사회봉사단의 미디어분과는 3일 동안의 활동 모습을 영상과 사진으로 담아,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 그리고 전 세계인들에게 코로나와 뜨거운 더위 속에서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백석사회봉사단의 모습을 알리기 위해 8분 분량의 V-Log 영상을 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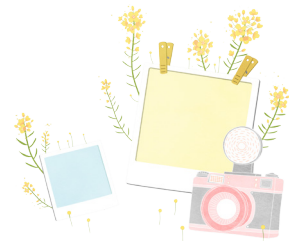


V-Log는 2021년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총 3일간 활동한 내용을 각 요일별로 나누었고, 그 당시의 영상과 사진 그리고 인터뷰 내용을 이용하였다. 영상은 크게 「백석대학교 사회복지센터에서 출발 → 농촌봉사 장소 도착 → 포도밭으로 이동 → 포도를 봉지로 씌우기 → 점심 식사 시간 → 포도 봉지 씌우기 → 센터로 다시 이동」으로 구성하였다. 자세하게는 봉지로 포도를 잘 씌우는 방법에 대한 강의식 인터뷰 내용과 봉사를 하면서 느낀 백석사회봉사단원들의 다양한 소감, 휴식시간에 노래 틀며 춤추는 단원들의 모습, 화채를 만들어 먹는 모습, 내년에 열여볼 타임캡슐에 들어갈 편지 작성 모습, 타임캡슐을 묻은 장소 등이 담겨있다.



영상 속의 단원들이 무더운 더위 속에서 아무런 불평불만 없이 서로를 격려하며 묵묵히 자신이 맡은 일들을 하며, 코로나 19로 진행하지 못했던 농촌봉사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고 나면,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언제나 즐겁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앞으로도 이러한 봉사의 기회가 많아져 다른 이들에게 웃음꽃을 피울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바라며, 이번 농촌 봉사활동 V-Log 영상을 보게 될 이들에게 봉사 정신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희망, 이웃을 향한 사랑을 전해줄 수 있기를 소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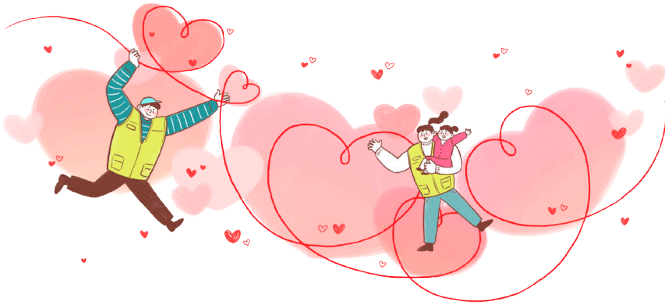


더워지는 날씨에 땀이 나고, 녹초가 되어가는 몸은 벌레와 흙먼지도 묻는 경험에 여태껏 아무 생각 없이 먹었던 포도 한 송이에 많은 정성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주 접해볼 수 없던 경험을 봉사단원들과 함께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어서 뜻깊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도시와 시골의 경계는 분명해지고 있었지만, 이번 농촌봉사활동을 통해 이러한 서로 간의 경계심을 허무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많은 추억을 쌓지 못한 신입단원들에게도 단원으로서의 유대감 혹은 소속감이 더욱 강화되고 이번 시간이 각자에게 좋은 추억거리로 남았을 것 같다. 물론 농촌의 고된 일들을 주로 하고 계신 노인분들의 마음의 짐을 덜어드렸다는 점을 제일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세상을 이끄는 백석사회봉사단



기자 이명화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 학생들이 소속된 백석사회봉사단은 이웃과 함께하는 대학이라는 건학 이념과 기독교 대학으로서 9월 낭만의 달을 맞이하여 홀로 아이를 키우게 된 미혼모, 미혼부들에게 마음을 담은 선물을 준비하여 한 부모 가정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는 '한빛 나눔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한빛은 세상을 이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백석사회봉사단은 아기가 쓸 모자, 모빌, 턱받이, 분유, 기저귀, 도넛 방석, 천 담요, 단원들이 직접 쓴 손편지를 박스에 각각 담아 총 10개의 한빛 키트를 제작하여 '천안 새소망의 집'에 전달하기로 하였다.

9월 기획봉사는 비대면 봉사팀과 대면 봉사팀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비대면 봉사팀은 모빌과 턱받이, 모자 이렇게 3팀으로 나누어 10월 2일 토요일 오전 9시에 만나 1시까지 총 2시간 동안 각 팀끼리 줌으로 모여 함께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대면 봉사팀은 비대면 봉사 단원들을 챙겨주고, 10월 8일 금요일에 모여 손 편지를 작성하여 비대면 봉사팀이 만든 물품(모빌, 모자, 턱받이)을 받아 기저귀, 도넛 방석, 분유 등 필요할 것 같은 물품들과 함께 넣어 포장하여 센터에 전달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많이 힘들 시기에 많은 대상자들에게 작은 힘이 되어주고자 이번 봉사를 준비하였고, 대면으로 사람들과 교류가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에서 한 부모 가정들에게 소소한 행복과 기쁨을 조금이라도 전해질 수 있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명 그대로 백석사회봉사단이 세상을 빛나게끔 이끈 것 같아 뿌듯하다는 말을 남기고 싶다.



#소감
한빛키트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14기 최주희

백사봉에 들어와 첫 기획봉사로 떨리는 마음도 크고, 어떻게 진행될까에 대한 궁금증이 컸습니다. 그런 상황 속 진행되는 회의와 단계들을 경험하며 체계적이고 또 단합적인 활동에 굉장히 흥미로웠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직접 기획하고 이행하다보니 정성과 책임감이 단원들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눈에 보여 더욱 긍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대면과 대면 봉사의 역할도 나누어 진행된 점에 있어 효율 역시 함께 챙길 수 있어 좋은 기획이자 봉사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백석문화대학교, 사회복지학부, 13기 김연수

이번 기획봉사는 미혼모키트를 만들어서 미혼모들에게 보내주는 봉사였습니다. 기억에 남는 봉사를 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대면을 하면서 만들었던 것들을 보면서 단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겠구나를 알았습니다. 만든 물품을 가지고 포장을 한 뒤에 미혼모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기가 좀 어려웠지만 진심을 담아서 열심히 썼습니다. 봉사는 얼핏보면 쉬운데 참 어렵게 봉사같습니다. 봉사도 공부가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씩 미혼모들을 위한 기획봉사를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물품만 보내지만, 물품으로만 끝나는 봉사는 많은 사람들이 잘 할 수 있으니, 코로나가 좀 안정화가 된다면 1년에 1번씩 10월에는 미혼모 센터에 가서 봉사하는 달 이렇게 정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13기 항빈희

미혼모에게 전해줄 키트를 만들면서 평소 청소년, 노인 등 새로운 대상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웠습니다. 다양한 용품을 만들면서 바느질을 주로 하게 되었는데 제 실력이 미흡한 점에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나흘을 걸쳐 모빌키트를 만들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난이도의 문제에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완성하고 난 후 미혼모들의 아이들이 좋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먼저 들었고 뿌듯했습니다. 앞으로 기획봉사를 하면서 기존 봉사해왔던 대상자와 또 새로운 대상자의 봉사, 다양하고 새로운 봉사를 해보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게 해준 기획봉사였던 것 같습니다.



백석사랑나눔 대축제



기자 김예진

20년 넘게 진행되어진 행사로 21년도 이웃과 함께 하는 대학 백석대, 문화대에서 진행한 행사이며, 코로나19 상황에 알맞게 바뀌어 올해는 김 장김치 대신하여 선물 박스를 통해 온정을 나누었습니다.

행사 주최측은 기독교 대학으로써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환경인 만큼 백석대, 문화대 학생들이 천안 지역 취약계층 이웃을 섬기고 또 나눔의 정신을 구현해 나가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길 바라고 지역 주민들께서는 조금이나마 위로를 얻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진행되어졌다고 말을 전했습니다.

선물 상자의 구성은 라면, 김, 쌀, 치약 등의 생필품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이웃을 돕기위한 마음 뿐만 아니라, 행사에 사용되어진 쌀의 경우 천안 지역 농가에서 구매하여 나눔을 실천한 것으로 코로나19로 힘든 지역 농민 살리기에도 한 몫 하였습니다.

방호복과 장갑, 마스크를 착용함으로써 방역수칙을 준수해가며 백석사랑나눔 대축제 를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날이 꽤나 쌀쌀했었는데 물건을 담고 박스를 옮기니 땀이 한 두 방울 나기 시작했고 이것보다 더욱 방역수칙이 중요한 직군에 종사하시는, 예로 간호사 분들은 얼마나 더 덥고 힘이들까 공감을 하게 되었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건네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소감
나눔 대축제

13기 김도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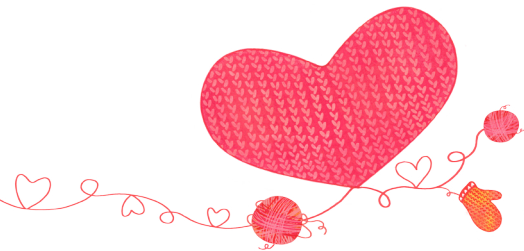
많은 인원들이 힘을 합쳐 소중한 나눔을 하니 정말 뜻 깊었던 시간이 되었고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12기 임가현

오랜만에 단원들을 만나서 반갑고 즐거웠습니다. 역할을 분담하여 패키지를 만들고 보내는 활동을 했는데 함께하니 착착 진행되어 금방 끝났고 그 부분에서 협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패키지가 받는 분들에게 보탬이 될 것을 생각하니 보람찼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하는 봉사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가을



기자 김예림

2021년의 추운 가을을 마음도 몸도 따뜻하게 바꿀 수 있는 봉사가 11월 13일 진행되었다. 천안에 거주하고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 연탄을 나눔 하며 창고에 연탄을 채워드리러 봉사활동을 진행하였다.

연탄봉사는 변화가, 아파트 단지와는 조금 떨어져서 거주하고 계시며 아직 연탄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나눔하며 무거운 연탄을 창고에 직접 채워넣는 봉사활동이 진행되었다. 연탄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접하였지만 실제로 본 단원은 많지 않았다. 생각보다 연탄은 꽤 무거웠으며 가루가 매우 잘 날렸다. 이렇게 무겁고 많은 연탄을 어르신들이 추운 날을 견디기 위해 옮기신다면 허리에 무리가 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더욱 열심히 봉사에 임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활동에 임하였다.

생각보다 거주하고 계신 주택의 입구가 좁아 한 줄로 서서 옆으로 연탄을 전달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계속해서 같은 자세로 무거운 연탄을 옮기다보니 손목과 팔이 아파왔지만 집주인 어르신께서 고맙다는 눈빛으로 옆에서 지켜봐주시고 말씀해주셔서 아픔도 잊고 열심히 활동에 임할 수 있었다.

단원들은 “연탄을 이렇게 실제로 본 건 처음인데 생각보다 무겁고 가루가 많이 날린다.”, “손목과 어깨가 많이 아프지만 많고 무거운 연탄을 우리가 다 옮긴 걸 보니 뿌듯하다.”, “뿌듯하고 좋은 경험이 되어서 기쁘다.” 라고 말하였다. 봉사를 진행하면서 추억도 쌓고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던 시간이 되어서 좋았다는 말도 함께 전하였다. 봉사를 진행할 당시엔 힘들었지만 나중에 사진과 영상을 본다면 뿌듯하면서도 보람찬 봉사였다고 회상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소감
연탄봉사

졸업하신 10기 함기정 선배님

백사봉단원분들과 같이 연탄봉사를 하게 되어서 좋았고, 같이 나른 연탄으로 이웃분들이 추운 겨울이 아닌 따뜻한 겨울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14기 김하영

연탄 봉사 소감: 처음으로 연탄 봉사를 해 보는 만큼 걱정도 많았는데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생각보다 빠른 시간에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무거웠지만 다들 열심히 하는 분위기여서 힘도 났습니다!

14기 김예림

실제로 연탄을 처음 접하기도 하고 이렇게 대면 봉사를 오랜만에 하는게 떨리기도 하고 기대되는 봉사활동이었다. 처음 만져본 연탄은 생각보다 무거웠다. 같은 자세로 계속해서 연탄을 옮기니 손목과 팔 부분이 아파오기 시작했다. 봉사활동을 하며 친해지지 못했던 단원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봉사를 함께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좋았다. 봉사하는 곳의 집 입구가 좁아 몇 명은 쉬고 몇 명만 일을 했는데 돌아가면서 쉴 수 있었고 담소도 도란도란 나눌 수 있어서 오히려 좋았던 것 같다. 처음 동아리를 들어올 때 어떤 봉사를 해보고싶냐는 질문에 연탄봉사와 같은 대표적인 대면 봉사를 해본 적이 없어서 해보고싶다고 한 기억이 나며 목표를 이루어서 두 배로 기쁘고 뿌듯한 기분이 들었다. 행복하고 뿌듯한 하루를 보낼 수 있어 너무나 뜻깊은 시간을 보낸 기분이 들었다.





이벤트분과 활동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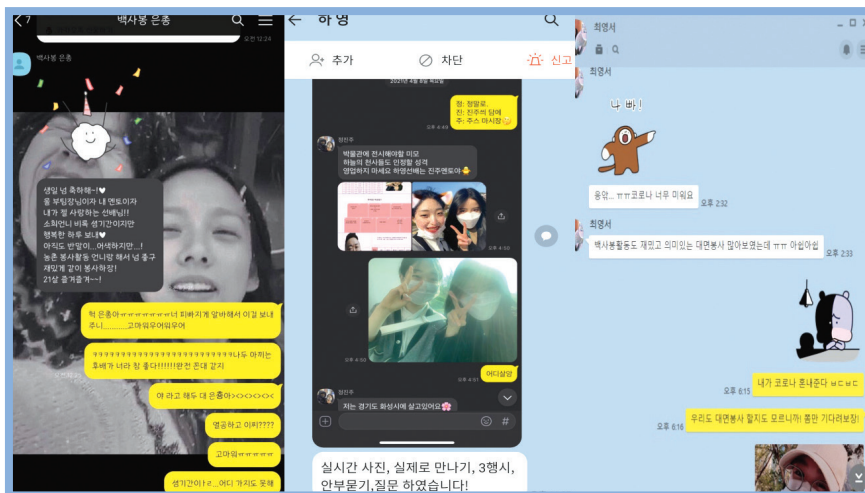
Step 01 : 멘토&멘티 활동하기

이벤트분과의 첫 번째 활동으로는 멘토멘티 활동하기를 하였습니다. 같은 과를 기준으로 멘토멘티를 구성하여 기준을 정해 서로 친해지며 과 꿀팁을 공유하고, 백사봉 내에서 친해질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멘토&멘티와 질문 주고받기

- 실시간 사진찍기
- 카페, 밥 먹기는 음식과 사람이 나오게 찍기
- 오프라인으로 잠깐 만나서 사진 찍는 것 인정
- 학과, 백사봉 꿀팁

멘토 이름	학번	학부/학과	멘티 이름	학번	학부/학과
김*아	201617	경상학부	김*영	202140	간호학과
정*석	201633	경상학부	이*은	202127	기독교학부
황*연	201939	관광학부	배*현	202121	관광학부
송*아	202021	관광학부	이*별	202130	관광학부
김*정	201913	관광학부	정*진	202133	관광학부
박*영	202020	관광학부	정*주	202133	관광학부
신*준	202022	경찰학부	이*환	2020030	경찰경호학부
박*희	201920	사회복지학부	윤*선	202041	사회복지학부
이*화	202026	사회복지학부	최*서	202136	사회복지학부
한*수	201938	사회복지학부	신*경	202123	사회복지학부
황*희	202036	사회복지학부	김*림	2021010	유아교육과
채*림	202034	보건학부	맹*은	202018	간호학과
이*아	201731	영여학부	김*아	201918	어문학부
오*연	201941	항공서비스학부	안*진	2020010	유아교육과
김*수	2020070	사회복지학부	주*린	2021070	사회복지학부
김*혁	2020060	관광학부	김*진	2020060	관광학부
임*현	2019121	안경광학과	박*영	2021010	유아교육과
신*준	2020100	보건의료행정과	정*연	2020050	보건의료행정과
김*민	2020140	간호학과	박*림	2020140	간호학과
유*희	2020141	간호학과	홍*종	202142	간호학과



Step 02 : 무엇이든 물어보살

두 번째 활동으로는 무엇이든 물어보살 활동을 하였습니다. 구글 문서에 좋아하는 음식, 영화 등 10가지 질문을 통해 공통점을 찾아 단톡방을 만들어 라이브톡, 카카오톡을 통하여 일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 백석사회봉사단원들이 서로 친해질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구글문서 공유(10가지 질문 답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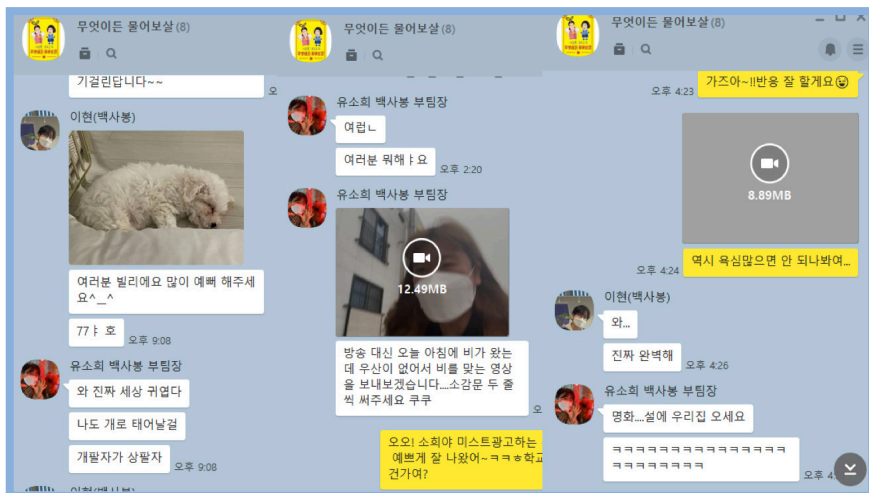
공통점 찾아서 단톡방 만들기

라이브톡, 자주 연락하기

백석사회	8. 만약에 내가 동물이 된다면 어떤 동물이 되고 싶든지? (이유와 함께)
1. 본인의 MBTI	김별 - 정민석.
ISTJ - 신예준	김민정 - 새 종류(하늘을 날아보고 싶어서)
ISTP - 김하영	황서민 - 편다.귀여우니까
ESTP - 송실비야, 이중	관광(박영) 박하영
ESTJ - 김연수, 오송민	송실비야 - 톱고래 (뭔가 깊은 바닷 속은 굉장히 고요하고 자유롭게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ㅎㅎ)
ESFJ - 송실비야, 이중	배가현 - 날다람쥐 (땅이랑 하늘이랑 둘 다 날 수 있어서. 귀여워서)
ISFP - 황빈희 최영서	이한별 - 고양이 (귀여울 땐 귀엽게 시크할 땐 시크하게 표현이 자유로우니까 1, 무엇보다 가만히 있어도 귀여워서 ㅠㅠ)
ISFJ - 이나은, 박예림	정예진 - 독수리 (천 세계를 무료로 관광할 수 있음)
ESFP - 배가현 김예림	정진주 - 오소리 (천 후들루프 임니다 오소리 귀엽고 맛있어서 한번 살아보고싶어요).
ESFJ - 맹서는 정민석	
INFJ -	
INFP - 김현아 박소희	
ENFP - 이현 이한별 정	
ENFJ - 임가현, 신한준	신한준 - 알바트로스 (가선 비바람과 폭풍우가 휘몰아쳐도 이를 이겨내고 힘차게 비행하는 점이 멋있어서)
INTJ - 정지연	박소희 - 뽀빠 귀여워서
INTP - 한지수 - 호랑이(멋있어서요)	
ENTP - 정예진 박하영	이명화 - 검은 말, 검은 늑대, 검은 표범 (멋있고 잘생겨서 카리스마 있는 모습이 좋습니당)
ENTJ - 안수진 신수경	황빈희 - 수달(좋아하는 동물이라서)
	윤영선 - 강아지 (발악으면서 문하게 쉬려구, 화내도 귀엽고 귀여울 땐 더 귀엽고ㅠㅠ)
	신수경 - 족보범 (멋있어 멋있어 멋있으니까 팔래요)
	최영서 - 고양이 (너무 귀엽다)
	이현 - 오소리 저는요 다람쥐가 되고 싶습니다. 이유는 좀 우선 다람쥐는 입에 많은 양의 도토리를 저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키가 작아서 요리저리 피할수도 있고 무엇보다 귀엽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아는 다람쥐는 chipmunk 예여 squirrel 은 약간 뽀빠가 조금 덜 귀여운 느낌의 다람쥐
	2. 본인의 혈액형은
A형 - 이한별, 맹서는, 오	이현 - 오소리 저는요 다람쥐가 되고 싶습니다. 이유는 좀 우선 다람쥐는 입에 많은 양의 도토리를 저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키가 작아서 요리저리 피할수도 있고 무엇보다 귀엽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아는 다람쥐는 chipmunk 예여 squirrel 은 약간 뽀빠가 조금 덜 귀여운 느낌의 다람쥐
B형 - 김연수, 오송민	이현 - 오소리 저는요 다람쥐가 되고 싶습니다. 이유는 좀 우선 다람쥐는 입에 많은 양의 도토리를 저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키가 작아서 요리저리 피할수도 있고 무엇보다 귀엽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아는 다람쥐는 chipmunk 예여 squirrel 은 약간 뽀빠가 조금 덜 귀여운 느낌의 다람쥐
O형 - >????	이현 - 오소리 저는요 다람쥐가 되고 싶습니다. 이유는 좀 우선 다람쥐는 입에 많은 양의 도토리를 저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키가 작아서 요리저리 피할수도 있고 무엇보다 귀엽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아는 다람쥐는 chipmunk 예여 squirrel 은 약간 뽀빠가 조금 덜 귀여운 느낌의 다람쥐
O형 - 배가현, 이현, 황빈	이현 - 오소리 저는요 다람쥐가 되고 싶습니다. 이유는 좀 우선 다람쥐는 입에 많은 양의 도토리를 저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키가 작아서 요리저리 피할수도 있고 무엇보다 귀엽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아는 다람쥐는 chipmunk 예여 squirrel 은 약간 뽀빠가 조금 덜 귀여운 느낌의 다람쥐
AB형 - 송실비야, 최영서	이현 - 오소리 저는요 다람쥐가 되고 싶습니다. 이유는 좀 우선 다람쥐는 입에 많은 양의 도토리를 저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키가 작아서 요리저리 피할수도 있고 무엇보다 귀엽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아는 다람쥐는 chipmunk 예여 squirrel 은 약간 뽀빠가 조금 덜 귀여운 느낌의 다람쥐

*4개의 방 구성

김현아	맹서는	홍은총	유소희
김○수	배○현	김 ○	이 ○
오○연	이○별	정○석	이○화
임○현	윤○선	유교 박○영	정○연
김○진	채○림	주○린	황○연
박○희	신○준	김○정	박○림
한○수	황○희	정○주	김○민
송○○아	이○환	신○경	신○준
김○혁	정○진	안○진	김○림
이○은	관광 박○영	김○영	최○서



Step 03 : 백사봉이 is everywhere

세 번째 활동으로는 동네주변 맛집 자랑하기와 백사봉 단원들과 하트사진 찍기를 하였습니다.
가장 점수를 많이 받은 사람은 기념상품(활동선물)을 준비하여 동기부여를 더 줄 수 있게 기획하였습니다

동네주변 맛집 자랑하기(개인 or 단원)



단원 or 자사봉 단원들과 하트 사진찍기



이벤트분과 4월 기획 〈아~ 밥 무썸!〉

미션	점수
안부 묻기 (이틀에 한 번)	1점
이름 3행시	1점
각 학과 꿀팁 대방출 (백사봉 꿀팁도 포함)	1점
멘토와 멘티가 서로에게 질문 5가지	1점
뭐하는지 실시간 사진 보내기	2점
페이스북으로 밥 먹기 (과정 시간이 보여야 한다)	2점
오프라인 만남 (밥, 카페 모두 OK)	5점



이벤트분과원 소감

이벤트분과장 유소희



처음으로 이벤트분과장을 맡았고, 이벤트 관련하여 활동을 해야하는데 혼자 생각하려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벤트분과원들이 많이 도와줘서 좋은 의견을 많이 내서 진행할 수 있었고 역할을 나누었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모여서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이벤트분과원들의 끈끈함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라서 좋았습니다.

이벤트분과원 홍은총



백석사회봉사단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제 눈에 들어온 분과가 이벤트분과였습니다. 평소에 아이디어 내기를 좋아하고, 특히나 성격이 너무 좋아보이는 부팀장님이 이끌어가서 이벤트분과원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다양한 이벤트를 만들지 못하였지만, 그 안에서 열심히 이벤트에 참여해주는 단원들의 모습에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내년엔 대면이 더욱 더 활성화되어 다양한 이벤트가 나온다면 더욱 더 친밀해진 백석사회봉사단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벤트분과원으로서 단원들의 성원에 감사하고, 같이 1년 동안 격려하며 이끌어간 이벤트분과원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이벤트분과원 맹서은



처음 백사봉에 들어와서 단원들과 많은 활동을 하고 의미있는 시간들로 보내고 싶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많은 제약이 있어서 아쉬운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직접 만나서 할 수 있는 활동은 아니지만 비대면으로 기획한 활동들도 많은 단원들이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벤트분과원끼리도 더욱 친해질 수 있었고 백사봉 활동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벤트분과원 김현아



지난 일 년간 이벤트분과원으로서 백사봉 활동에 임하는 저에게는 책임감과 즐거움이 공존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대면으로 만나서 이벤트 기획과 진행 모두에 원활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어 조금 아쉽지만 그 안에서의 최선을 다하여 단원들을 위한 각종 이벤트를 기획했다는 사실이 참 뿌듯합니다. 부족한 행사들이었지만 잘 참여해주신 단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이며, 이벤트분과를 잘 이끌어준 부팀장님과 분과원들에게도 고맙다는 인사 전합니다.

1학기 지역사회봉사



비전지역아동센터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 청소년에게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의 자원을 확보, 발굴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및 연계하고 지역사회 내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지망을 강화하는 시설

기관소감문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하여 지역사회와 연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다시 한번 백석사회봉사단과의 인연이 되어 참으로 감사함을 느낍니다. 먼저 백석사회봉사단 단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담아 이렇게나마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작년에도 그랬듯 프로그램이 끝날 때마다 아이들에게는 늘 아쉬움이 남는 듯 합니다. 처음에는 비록 소통하는 방법이 서툴렀지만 10주라는 짧은 기간동안 우리 아이들도 어느새 서슴없이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터득하며 비대면이지만 더 직접적이고 친밀하게 생각을 나누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면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면 소수의 아이들보다 많은 아이들에게 기회를 열어주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또 함께 할 수 있다는 기대, 그리고 기다림으로 다시 한번 희망을 열어두려고 합니다. 매번 새롭고 다양한 놀이를 제공해주신 백석사회봉사단 단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지 우리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백석사회봉사단 언제나 파이팅입니다!!



♥ 봉사후기

대면으로 만나서 하는 봉사가 아닌 줌으로 하는 봉사라서 그런지 활동을 할 때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이들이 생각보다 선생님들 말을 잘 따라줘서 그런지 10주라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서 아쉽지만, 아이들과 함께한 봉사가



서 그런지 매주 좋은 추억과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한 학기 봉사활동이 잘 마무리 되어서 좋았고 첫 봉사를 진행하면서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함께 봉사를 참여한 자원분들의 도움으로 활동을 잘할 수 있었습니다. 약간의 아쉬운 점은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을 직접 만나지 못해서 함께 대면으로 할 수 있는 레크레이션 활동이나 대면으로 활동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하지 못해서 아쉬웠지만, 비대면 봉사도 코로나 시기에만 가능한 봉사활동이라 생각하고 나중에 되돌아봤을 때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함께 진행한 백사봉의 단원들과도 처음 시작할 때는 어색하기도 하고 처음으로 접해보는 봉사활동이라 긴장도 많이 되었지만 매주 단원들과 아이들과 친해지고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도 너무나 좋습니다. 시작할 때는 10주라는 시간이 길어 보였는데 막상 활동하다 보니 10주라는 재밌었던 시간이 금방 지나간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다음 학기에도 기회가 된다면 이번 경험을 토대로 좀 더 많은 봉사활동을 참여하고 싶고,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좋아하는 표정을 보면서 저에게도 오는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끼게 해준 경험이 된 것 같아서 나름 뿌듯하기도 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드림스타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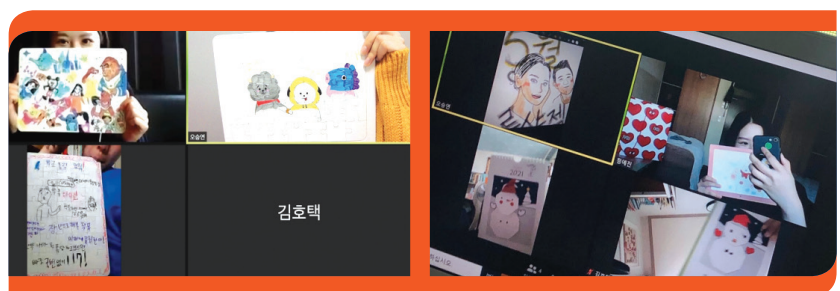
취약계층 아동에게 사례관리를 통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관소감문

코로나19 시대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에 제약이 많았던 현 시점에서 드림스타트를 이용하는 많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기관 내에서도 집단프로그램을 많이 해왔는데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첫 사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줌을 이용하여 가정 내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해야하는 부분이 있어 참여 여부에 대한 적극성, 지속성에 대해 고민이 많았고,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매체를 이용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도 공존하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작하고 나니 아이들이 스스로 너무 잘 참여하였고 적극적으로 다가가며 질문도 하고 건의도 하는 모습을 보며 비대면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습니다.

아동의 정서적지지 및 미술활동 체험을 해볼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하는 기회를 통한 사회성 향상도 모색할 수 있었던 프로그램이었고 멘토들 역시 항상 적극적이고 열심히 하는 모습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기회가 있다면 다시 한 번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 천안시 드림스타트 김다영 아동통합사례관리사



♥ 봉사후기

10주라는 시간의 소중함

봉사를 처음 시작할 때에는 많은 걱정이 있었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었을 정도로 아이들은 저희의 말을 잘 따라주고 좋아해주었기에 함께 재미있는 활동들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달이라는 시간동안 한 주에 한 번씩 줌을 통한 비대면 활동을 통해 아이들과 정도 많이 쌓였고, 남들은 모르는 우리들만의 이야기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비대면 활동으로도 아이들과 친해지고,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직접 만나서 활동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활동 중간중간 아이들이 하기에는 위험한 부분, 또는 어려워하는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도와주기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비대면 활동의 한계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제한된 생활이 풀리고 대면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지게 된다면 저는 비대면 활동 아닌 대면활동으로 다시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10주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동안 느꼈던 즐거움과 뿌듯함을 잊을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의미 있고, 보람찼던 봉사활동이었습니다.

착한아이지역아동센터

착함이란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아름답고 귀한 성품이며,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서로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 한참 보살핌과 교감 활동 교육이 자양분이 되어 커다란 꿈나무로 성장할 미래의 주인공인 아동들, 특히 환경의 어려움으로 손길이 못 미치는 아동들에게 더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디딤돌의 역할로 지역의 아동들을 위해 2009년 7월에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 문을 열었습니다.



기관소감문

비대면 ZOOM으로 진행하며 네트워크가 원활하게 연결되지 못하여 불편한 점은 있었지만 아동들이 능숙하게 잘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열정적으로 참여를 해준 덕분에 아동들과 금방 라포를 형성하며 많은 대화를 나누며 진로나 취미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많은 대화가 오가며 재미있는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플래너 만들기, 열쇠고리 만들기, 스크래치 페이퍼, 디폼블럭 등 아동들이 호기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준비해주어 아동들의 참여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재료도 아동들이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백석사회봉사단 여러분들의 꼼꼼한 준비와 효과적인 프로그램 진행으로 저희 착한 아이들이 소중한 꿈을 향해 성큼성큼 나아갈 수 있도록 성장시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원봉사단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봉사후기

한 층 더 성장했던 봉사

처음 활동을 준비할 때에는 잘 할 수 있을지 걱정도 많이 되고 긴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되어서 아이들과 어색해하지 않고 친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처음 만나 활동했을 때, 어떤 식으로 말을 꺼낼까 생각하면서 우물쭈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생님이 분위기를 풀어주셔서 부담감을 조금 내려놓고 자신감을 얻어 아이와 함께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활동을 진행하면서 아이가 먼저 활동을 끝내고 기다려주고 괜찮다고 긍정적인 말을 해주며 배려해주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예쁘고 고마웠습니다. 또 조금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라고 불러주던 아이가 귀여웠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아이의 좋아하는 것과 관심사에 대하여 알아보면서 더 친밀감과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막연히 봉사활동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닌 행복한 미소를 짓는 아이들을 보면서 저 역시도 성장하고 마음이 치유되는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세상

『좋은세상』은 여성정신장애인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일상생활기술훈련, 사회재활훈련, 직업재활훈련 등 독립생활에 필요한 훈련을 지원합니다.

기관소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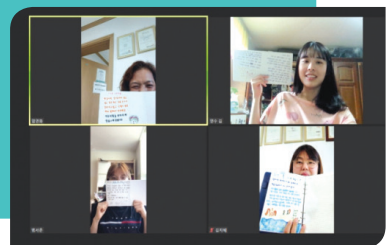
코로나 19 전염병예방을 위해 21년 1학기에도 역시 Zoom 앱을 활용하여 백석대학교 사회봉사단과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활동하였습니다. 21년도에는 '북아트' 만들기라는 주제로 각 회기마다 자신에 대해 표현하고, 멘토와 멘티가 서로 교감/공감하며 정서적 안정 및 기분환기라는 긍정적 반응이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도전으로 더욱 단단한 내재화된 힘을 기를 수 있고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시설에서의 외부활동, 사회활동이 축소됨에 자칫 '코로나 블루'를 겪을 수 있는 상황에 좋은세상 참여자 분들은 매주 목요일 16시는 즐겁고 설레임이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 봉사후기

목요일의 힐링

대면으로 하는 봉사 보다는 효율성이 조금 떨어지고 진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비대면의 매력도 나름대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매주 봉사가 일상이 되었고, 처음과는 달리 멘토로서의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처음 어색했던 대상자들과 봉사자들과는 달리 지금은 처음보다 많이 친해졌고 같이 진행하는데 있어서 합이 잘 맞는다고 생각하며 다음 봉사 때도 또 만났으면 바람도 있습니다. 대상자분을 처음 소개 받았을 때는 많이 긴장되고 어려웠었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고 개인의 아픔과, 추억을 공유하며 한 걸음 더 가까워져 활동 전의 생각은 고정관념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저희에게 해주신 것을 듣고 마음을 여신 것 같아서 감동 받았고 저희도 저희 얘기를 하면서 서로의 살아온 삶과 방식에 대해 공유하며 깊어진 사이를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두 같이 '봉사'라는 한 마음으로 같은 활동을 하게 되어 영광이었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밥이라도 한 번 먹고싶습니다. 10주동안 매주 목요일의 힐링이었던 지역사회봉사가 끝난다는 것이 아직 실감이 안 나고 많이 아쉽지만 다음 학기에도 기회가 있으니 이별의 아픔에서 벗어나 마무리도 아름답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정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들의 열린 참여 · 활동의 공간으로서 청소년들의 주도적 참여를 통하여 올바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참여 · 권리증진과 역량개발, 지역사회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등 다양한 청소년 사업을 추진하는 시설

기관소감문

다양한 만들기 활동들을 통해 아이들이 평소에 접해보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직접 만들어보고 좋은 결과물까지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의 관심과 집중도가 향상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멘토멘티 체제 및 조별로 진행됨에 따라 선생님들께서 아이들 개개인에게 집중을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려 하신 점이 좋았습니다. 활발한 아이들이 모여 있어 프로그램 진행이 어려웠을 수 있었지만, 조별로 나누어 진행되어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0회기동안 아이들과 진행하시며 어려운 점도 많으셨을텐데, 끝까지 밝은 모습으로 진행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또 진행하고 싶을만큼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백석사회봉사단 파이팅!

♥ 봉사후기

너와 나 우리는 하나, 잊지 못할 비대면 봉사

실제로 만나서 서로 보고 듣고 느끼는 활동들을 함께 했어야 했는데 화면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현실이 많은 아쉬움에 들게 했습니다. 한참 뛰어 놀 나이에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놀지도 못할까 봐 안타까움이 들어 더 챙겨주고 웃겨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이들과 했던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활동 한 가지 뽑자면 마스크 스트랩 만들기 활동이 있습니다. 이 활동은 코로나 시국이 아니었다면 하지 못했을 활동이기에 더욱 뜻깊었습니다. 나만의 스트랩 줄을 직접 만들어 봄과 동시에 아이들에게 마스크의 경각심도 심어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봉사하면서 가르치기도 했지만 오히려 배울 점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끝나지 않는 이상 대면 봉사는 어렵겠지만 다음 봉사는 이번 봉사를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더욱 뜻깊고 원활한 봉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학기 지역사회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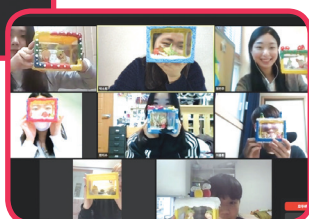
비전지역아동센터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 청소년에게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의 자원을 확보, 발굴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및 연계하고 지역사회 내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지망을 강화하는 시설

기관소감문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역사회와 연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다시 한번 백석사회봉사단과의 인연이 되어 참으로 감사함을 느낍니다. 백석대 봉사단 단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상반기에도 그랬듯 프로그램이 끝이 날 때마다 늘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서툴렀지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선생님들과 아이들도 어느새 서슴없이 소통하는 법을 터득하며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면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면 소수의 아이들보다 많은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크게 남습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다시 함께 할 수 있다는 기대를 열어두려고 합니다. 매번 새롭고 다양한 놀이를 제공해주신 백석사회봉사단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지 우리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백석사회봉사단을 언제나 응원 하겠습니다!



봉사후기

코로나로 아쉬운만큼, 더욱 소중했던 10주의 시간

3개월동안의 시간이 이렇게 끝나 마무리짓는 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이번년도 또한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해 우리 아이들의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봉사를 끝맺음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화상접속시스템인 ZOOM을 통해 10주를 보냈지만, 그 안에서도 큰 뿌듯함과 기쁨이 있었던 기억이 남습니다. 대면봉사도, 비대면봉사도 다 해본 저로서도 첫 만남은 항상 긴장이 됐었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들을 어색해하진 않을까,

무슨이야기로 긴장을 풀어줘야할지, 생각보다 지루해하면 어떡하지 등등 수많은 고민을 하며 10주를 보내왔었는데, 이런 고민이 무색했던만큼 우리친구들은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줬고, 열정 가득하게 임해줬던 게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주매주 활동이 모두 의미있고, 소중하게 이뤄졌던 것 같고, 주차가 흐를수록 선생님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고, 고민상담 할 뿐 아니라, 선생님들에게 질문도 많이 해준 우리아이들에게 너무 감동받았던 기억도 상당합니다. 아이들과 더욱 친해지게 되면서 만나서 했다면 어땠을까하는 아쉬움이나 호기심도 커져갔지만, 이렇게라도 봉사를 진행할 수 있어 뜻깊은 한 학기가 된 것 같습니다.

샘물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내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안전한 보호를 통해 맞춤형 학습지원과 체육, 미술, 음악 등의 다양한 문화활동 및 교육을 지원하고, 아동 및 가정에 대한 상담과 집단코치를 통한 정서지원 등의 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심리, 사회적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기관소감문

- **잘된점** - 코로나19라는 어려움에도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해주시고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아쉬운점** - 비대면으로 진행하다보니 아이들이나 선생님들과 교류가 적었던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한해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석사회봉사단 파이팅!!



봉사후기

2학기 샘물지역 아동센터 봉사활동

첫 시간부터 세 번째 시간까지는 기관에 가서 방역수칙을 지키며 대면으로 봉사를 진행하였었기 때문에 아이들과 직접 만나 친목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시간부터는 비대면으로 봉사를 진행하였고 선생님 3명씩 두 팀으로 나눠 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초등학교 저학년이 대부분이었기에 만들기도 이해하기 쉽고 잘 따라 할 수 있는 것들로만 활동하였습니다. 만들기 활동은 서로의 얼굴 그리기, 에코 저금통, 미니 불력, 독도 닳은 식물, 펠린 동물 친구 색칠, 어몽어스 마스크 스트랩, 보석십자수 스트링 액자, 마지막 시간엔 활동을 되돌아보는 굿바이 인사 활동을 하였습니다.

대면으로 진행할 때는 만나서 진행하다 보니 아이들에게 얼굴과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알려주고 저도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이들이 봉사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으면 직접 나서서 집중시킬 수 있었고 만들기를 할 때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옆에서 직접 가르쳐주며 함께 만들면서 친목을 다질 수도 있었기에 좋았습니다. 비대면으로 진행할 때는 아이들의 목소리와 얼굴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이름을 부르며 집중시키기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기관과의 비대면 연결이 불안정했고, 봉사를 진행했던 아이들이 매주 몇 명씩 바뀌다 보니 아이들끼리 떠들고 만드는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 집중하는 느낌보단 기관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께 더 집중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아이들을 재밌게 해주는 법을 새롭게 배워 뿌듯하기도 하고 한 학기 동안 잊지 못할 경험과 아이들의 따듯함을 선사해줘서 감사한 봉사활동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코로나 상황이 좋아져 대면으로 봉사해도 아무렇지 않은 시간의 연속이었으면 왔으면 좋겠습니다.

성정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들의 열린 참여 · 활동의 공간으로서 청소년들의 주도적 참여를 통하여 올바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참여 · 권리증진과 역량개발, 지역 사회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등 다양한 청소년 사업을 추진하는 시설



기관소감문

10회기동안 방과후아카데미 '별하' 청소년들과 함께 다양한 키트로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교과수업만 진행 하면 아이들이 지루해하는데, 성성타임을 통해 한 템포 쉬어가며 힐링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1학기 때에 이어 계속 비대면으로 진행하다가 이번에는 기회가 되어 대면으로 1회 진행하였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즐거워하고 만족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아 실무자인 저까지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더불어 아이들을 위해 간단한 편지와 간식까지 준비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비대면 성성타임 활동 시 참석률이 낮은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대면활동 때 백석사회봉사단 선생님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많이 참여하지도 못했는데 편지까지 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말하면서 우는 모습을 보고 선생님들의 진심이 아이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또 좋은 프로그램으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백석사회봉사단 파이팅!



봉사후기

성정 청소년 문화의 집 지역 사회 봉사활동 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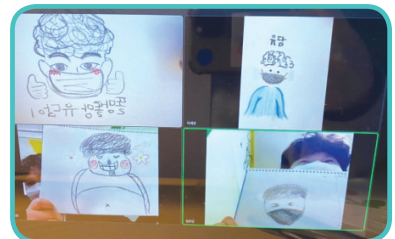
2학기에는 제가 주도적으로 봉사를 진행하여 참여했는데, 아동들과 더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들과 진행을 뜻하던 대로 할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매주 활동을 하면서 봉사활동이 항상 제가 원하던 대로 흘러가지는 않았지만, 때때로 아동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봉사활동에 참여하길 잘했다는 생각도 들고 뿌듯해져 더 열심히 하고 싶어졌습니다. 같이 열심히 활동하는 백사봉 분들을 보며 더 기운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이 활동을 하길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청소년 문화의 집에 다니는 아동들을 직접 상대해봄으로써 다양한 경험을 쌓을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평소에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다 보니 다른 사람을 접하고 대화하는 것이 어려웠는데 지역 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낯가림을 극복하고 타인과 소통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착한아이지역아동센터

착한아이지역아동센터는 2009년 7월 27일 개소하였습니다. 충남 천안시 동남구 삼룡천2기 9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학기 중에는 10시부터 19시까지 운영, 방학 중에는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25명이 정원이며 2021년 12월 현재 23명이 센터에 등원하고 있습니다.



기관소감문

아동들이 꿈놀이를 하기 위해 준비물을 챙기면서 내일 꿈놀이는 무엇을 할지 기대하는 아동도 있었습니다. 통신환경이 안 좋을 때에도 열심히 참여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스포츠 스테킹 컵이 종이컵이라 잘 안 되어 센터에 있는 스포츠 스테킹 컵을 이용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동들이 새로운 선생님들과 만나서 처음에는 어색하였지만 마지막 회기 쯤에는 서로 친해져 마지막이라는 것에 아쉬워 하였습니다. 비대면 줌으로 참여하다보니 아동들의 반응이 다소 소극적이었다고 생각하고 선생님들도 아동들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다음에 프로그램을 하게 된다면 대면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길 희망합니다. 또한 다음 프로그램을 할 때에는 아이들이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것들이나, 만들기보다는 그림 그리는 것 등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을 수 있는 것들로 구성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아이들의 반응도 더 끌어올 수 있고,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1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억에 남을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악한 환경속에서 비대면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 선생님들 모두모두 고생많으셨습니다. 아이들도

선생님들을 기억하고 아쉬워하며 즐거운 기억으로 남은 프로그램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 우리 아이들 이뻐해주시고 적극적으로 봉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봉사후기

열정! 열정! 열정! 뜨거운 열정의 1004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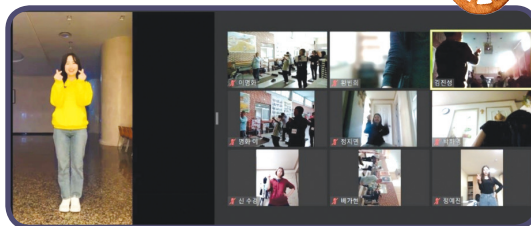
우리 백석사회봉사단은 지난 10주 동안 자기소개, 스포츠 스타킹, 아이클레이, 종이비행기 만들기, 걱정 인형 만들기, 식물 키우키 세트, 아크릴 무드등, 피켓 스피너 놀이, 윷놀이, 그림 그리기 및 편지쓰기 활동을 순서대로 진행하였으며, 줌으로 하는 비대면 활동이라 아동들에게 활동을 설명하고, 이해를 도와주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다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또 다른 아쉬운점은 줌 연결이 주기적으로 끊겨 활동이 지체되는 것이 아쉬웠는데, 주차가 진행되며 기관 분들과 바로 연락할 수 있는 카톡방이 생겨 많이 좋아졌습니다. 만들기 활동은 대면으로도 비대면으로도 하기 좋은 활동이지만, 만약 내년에 대면으로 진행이 된다면 아동을 대상으로 활동을 하는 만큼 만들기 활동 말고 체육 활동이나 다른 활동도 관심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착한아이 지역아동센터에서의 봉사는 10주라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동안 비록 부족한 선생님이지만 믿고, 열심히 따라와준 아이들에게 고마운 감정이 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봉사를 하며 줌 연결 문제와 같은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항상 솔선수범하는 우리 목요일 지사봉 팀의 조장님과 조원분들 그리고 이러한 우리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아이들이 있었기에 이번 2학기 봉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처음 봉사를 시작할 때의 어색하고, 서먹서먹한 감정은 주차가 진행되며 점점 열여졌으며, 서로의 뜨거운 열정과 봉사에 대한 책임감은 반대로 더욱 더 커져갔습니다. 제 학교생활에서의 마지막 봉사를 착한아이 지역아동센터에서 보낼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죽전원

다변하는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사회문제와 환경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선천적, 후천적 장애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급변하는 장애인 정책에 따라 장애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와 기대치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죽전원은 시대변화와 정책변화에 발맞추어 보다 나은 서비스와 행복하고 편안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항상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천안죽전원은 worker가 client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거주 시설이 아닌, 하나의 대가족이라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며 나누고, 힘들 땀 안고 감싸주며 때로는 서로 조언이나 충고를 주기도 하는 그런 훈훈한 가족 공동체입니다.





기관소감문

코로나19로 인해 자원봉사 참여가 힘들었지만 zoom을 통해 비대면으로 많은 자원봉사자와 함께 봉사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방문해 주신 봉사자분들이 거주인을 위해 체조나 춤을 통해 같이 하는 모습이 봉사에 대한 마음이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올해도 정기적으로 방문해 주신 백석사회봉사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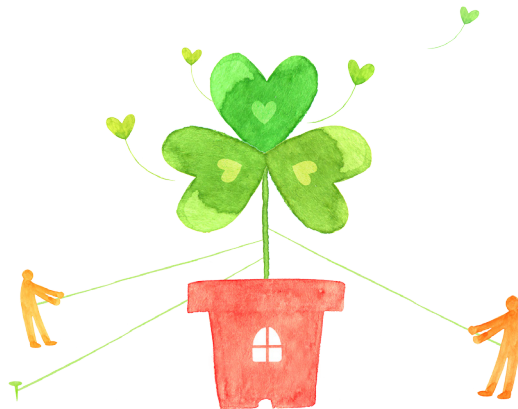
봉사후기

지연이와 7명 죽전원 이야기

코로나로 인해 대면 봉사에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면 봉사자들과 비대면 봉사자들이 함께 노력하여 대면+비대면 활동을 병행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대상자분들은 고정적이신 분들도 계셨고 때에 따라 빠지거나, 새로 들어오시거나 하는 약간의 변동은 있었습니다. 첫 주차 때는 처음 시작하는 활동에 시간 분배라든지, 인터넷 연결, 진행 등에 있어 많이 미흡했지만 한 주차가 끝날 때마다 피드백을 통해 조금씩 개선해 나갈 수 있었고, 날이 갈수록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눈에 보여 좋았습니다. 또한 대상자분들이 항상 반응도 잘 해주시고 최선을 다해 활동에 참여하려는 모습을 많이 보여 주셔서 저희 봉사자들도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대상자분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고민도 걱정도 많았지만 생각보다 너무 밝고 에너지가 넘치셔서 오히려 금요일의 16시-17시는 일상에 지친 저희에게 위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10주차의 활동이 끝난 게 실감이 안 나고 여러가지 감정이 교류하는데 이번 봉사 활동을 통해 봉사자들끼리도 더 친해지고 많은 추억이 생겨서 좋았습니다. 또한 저희와 함께 하는 시간을 기대하고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며 뿌듯하고 저희가 드린 마음보다 더 큰 좋은 추억을 선물해주신 것 같아 감사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이 모든게 추억이라 생각하며 앞으로의 인생에서도 이번 경험을 토대로 더 다양하고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할 것입니다. 대상자분들도 지 금처럼 밝고 활발하고 열정적인 모습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이 아니라 언제든지 또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며 마지막을 아쉬워하지 않고 웃는 얼굴로 기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학기 봉사활동은 저희 8명의 봉사자들에게 선물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백사봉 MBTI의 모든 것



①유형별 찰떡의 조합들

게으른 완벽주의자

INFJ INFP ISFP ENFP ESTP

할 일을 미룰 수 있는 한 끝까지 미루다가 발등에 웅암이 떨어지면 시작하는데, 또한 이걸 대충은 못합니다. 완벽하게 못할 거면 아예 하지 않습니다.

똑딱이 5인방

INFJ INTP ISTP INFP ISFP

리액션이나 행동이 묘하게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우며, 특히 낯선 사람 또는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유난히 어색한 웃음과 부적절한 질문을 하는 등 똑딱 거립니다.

환불원정대

INTP ESFJ ENTP ESTP

직설적인 화법과 화가 많은 유형이라 제품에 하자가 보일 때 환불 원정을 하러가는 조합입니다.

유교걸 유교맨 조합

ISTJ ESTJ ISFJ INTJ

특히나 보수적인 조합으로 이들은 규칙, 질서, 규범을 무척 잘 지킵니다. 잘 안 지키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으며 싫어합니다.

개시끄러운 조합

ESFP ESTJ ENFP ENTP

절대로 입 다물지 않는 조합입니다. TM을 남발하며, 상대의 이야기는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② 상황으로 보는 대학생 유형

E	3학년인데도 간다	MT	2학년 때도 갈까 말까	I
S	노트에 써가면서 무작정 외운다.	공부	이해할 때까지 텍스트 쳐다 본다	N
F	이거 보면서 "미친! 나다"하고 있다	지금	"엥? 이걸 아는데?" 하면서 보고 있다	T
J	과제 다 하고 논다.	과제	놀고 나서 과제한다.	P

③ 유형별 위로하는 말 / 친해지는 방법

#INTP

- (1)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 (2) 말할 때마다 얼굴 마주하며 들어주고, 호응+리액션 해주기

#INTJ

- (1) 너..우는거야..?
- (2) 마주칠 때마다 과자같은 주전부리 손에 쥐여주기

#INFP

- (1) 너무 걱정하지마! 너의 능력을 보여줄 기회가 분명 올 거야!
- (2)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품에 안고 부둥부둥 보듬어주기

#INFJ

- (1) 네 잘못이 아니야
- (2) 해주는 일마다 감동하며 장문 카톡 백만개 보내기

#ENTP

- (1) 힘내!
- (2) 네가 세상에서 제일 웃기다면서 배 움켜잡고 자지러지기

#ENTJ

- (1) 그런 것 때문에 네가 슬퍼할 필요 없어
- (2) 천재라고 너무 믿음직스럽다고 호들갑 떨면서 복종하기

#ENFP

- (1) 다 잘 될거야!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 (2) 친구 중에서 네가 제일 좋다면서 같이 찍은 사진 프사하기

#ENFJ

- (1)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한테 천천히 말해봐 다 들어줄게
- (2) 뭐만 해주면 고맙다고 감동하면서 하트 뽕뽕 띄우기

#ISTP

- (1)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이야?
- (2) 틈날 때마다 선물 퍼부어 주고 절대 생색내지 않기

#ISTJ

- (1)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
- (2) 결정 못 하고 고민할 때 한방에 해결책 제시해주기

#ISFP

- (1)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아무 걱정 하지마
- (2) 집에 초대해서 폭신한 침대에 눕혀서 먹을거 쥐여주고 넷플릭스 틀어주기

#ISFJ

- (1)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을까?
- (2) 친해지려고 오바하지 말고 예의바르고 착하게 행동하기

#ESTP

- (1) 뭐 때문에 슬픈건지 말해봐
- (2) “오늘 집에 못간다~!”라며 흥청망청 같이 술먹기

#ESTJ

- (1) 대체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거야?
- (2) 관심 분야에 대해 이것저것 질문하기(바보같은 질문X)

#ESFP

- (1) 노래방 가자!
- (2) 너 없으면 모임 노잼이라고 제발 외달라고 찬양하기

#ESFJ

- (1) 너 기분이 나아질 수 있다면 뭐든 같이 해보자!
- (2) 딱치는 대로 약속을 만들어서 365일 불러서 놀기





볼런티어 기자단 에디터



• 14기 미디어분과장 이명화



안녕하세요. 14기 미디어분과장 이명화입니다. 13기에는 미디어분과원 중 한명으로서 활동하였던 제가 14기 미디어분과장이 되어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되돌아 봤을 때 전에도 그리고 지금에 와서도 아직 서툴고 부족한 부분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런 저와 함께 해준 우리 14기 미디어분과원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활동하는 백석사회봉사단의 모습을 미디어분과원들과 함께 사진과 영상에 담는 역할을 맡았다는 것에 정말 행복하고 영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분과의 이런 노력을 통해 소중한 추억이 다음 기수에게도 보여줄 수 있고, 백석사회봉사단의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반에 계획했던 콘텐츠를 중 몇 개는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것이 아쉬웠으나 사진과 영상 촬영, 인터뷰, 영상 제작, 뉴스 작성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준 것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처음 뉴스를 제작해 보는 분과원이 계셨을텐데 정말로 열심히 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전진하고 발전하는 미디어분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백사봉 사랑합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져 더욱 활동적인 백사봉을 만들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2021년 한 해 백사봉 덕분에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 14기 미디어분과원 이 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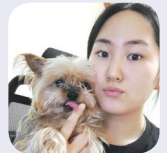
1년을 되돌아 보았을 때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은 단원들의 봉사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담고 이를 추억으로 남기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 외로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카드뉴스를 제작하고 농촌 봉사활동 영상을 제작한 과정들 또한 매우 뜻깊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코로나 19로 인해 미디어 분과 활동을 더욱 활발히 하지 못한 점이 아쉽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준 미디어 분과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14기 미디어 분과장을 맡은 이명화 단원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미디어 분과장으로서 책임과 최선을 다해주어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 저희의 모든 결과물들이 대단한 결과물은 아닐지라도 단원들 마음 속 한편에 깊이 남는 추억으로 자리하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백사봉 여러분♥

• 14기 미디어분과원 김예림



안녕하세요. 14기 김예림입니다! 미디어분과 단원으로서 영상 촬영도 하고 사진 촬영도 하며 단원들과 친해지고 이야기 나눌 기회가 많아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기사도 작성하며 봉사활동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열심히 작성한 기사와 영상 등을 직접 제작하고 도우며 의미있게 시간을 보낸 것 같아 뿌듯한 마음이 있습니다. 내년엔 올해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적극적인 단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디어분과 최고~~~

• 14기 미디어분과원 김예진



안녕하세요. 14기 김예진입니다 미디어분과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미디어분과가 하는 일은 봉사원들의 보람찬 현장 봉사 및 비대면 봉사 활동들을 카메라에 담고 우리 백사봉 카페에 공유하거나 찍은 사진들을 이용하여 행사의 취지 및 내용을 백석대, 문화대 학우들에게 전달하는 뉴스 작성을 하는 활동들을 도맡아 진행합니다.

• 14기 미디어분과원 윤영선



안녕하세요 백석사회봉사단 14기 윤영선입니다! 제가 백사봉에 들어와 활동한지도 벌써 1년이 되었네요. 저는 백사봉 미디어분과에 들어가 우리 백사봉이 진행했던 활동, 단원들의 모습들을 카메라에 담아 뉴스를 제작하면서 많은 부분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첫 뉴스 제작이라 힘든 부분이 많았지만 미디어분과장과 미디어 분과분들의 도움을 받아 멋지게 완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잠깐씩 만났던 그 짧은 시간동안 잊지 못할 추억과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보면 봉사도 참여하고 참여 속에서 사진도 찍고 뉴스도 작성도 해야 하니까 머리 아프고 귀찮은 역할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저는 이 조원 활동이 굉장히 재미있고 뿌듯하고, 의미 깊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활동을 사진으로 남기고 그걸 기사화 한다는 것이 곧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겨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미디어분과 조원으로 활동해볼까? 라고 고민 한다면 자신 있게 권유 드릴 마음이 있을 정도입니다. 소감을 마치며 그동안 열심히 활동을 함께했던 조장, 조원들에게 작은 감사의 말과 함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